

동이요왕(東海龍王) 할마님이 묻자 나며 인간 할마님이 묻자 탄생했소리까? 동이요왕할마님이 묻자 솟아나고, 동이요왕 할마님이 솟아납기는 신구월(九月) 초아흐렛날 아방국¹⁾ 동이용궁(東海龍宮) 어멍국[母] 서이용궁(西海龍宮)으로 솟아나 열다섯 십오세 나니 훈두설[一, 二歲]에 아바님 삼각쉬(三角鬚) 메온²⁾ 채목(罪目) 아바님 통대 거끈 채목 어머님 즙가심³⁾ 허위튼은⁴⁾ 채목을 마련허연 죽이기로 훌 때 서이용궁 어멍국이 말을 흐드

“이 내 속으로 난 주식을 어찌 이 내 손으로 죽일 수 있으리까. 그리 말고 동이용궁 췬처리⁵⁾ 아들 불러당 무쉐설캅을⁶⁾ 맹글아그네⁷⁾ 죽으랭 동이와당데레⁸⁾ 띠와불미⁹⁾ 어찌 흐오리까?”

“어서 걸랑 그리 흐자.”

동이용궁(東海龍宮) 뜨님얘기 말을 흐드.

“어머님아, 난 인간의 강 뒷을 허영 삽네까”

“인간의 생불왕이¹⁰⁾ 엇이메¹¹⁾ 생불왕(生佛王)으로 들어상 얻어먹기 설연 흐라.”¹²⁾

“생불은¹³⁾ 어떻 주멍¹⁴⁾ 환생(還生)은 어떻 줍네까?”

“아방[父] 몸에 흰 피(白血) 석 들 열흘, 어멍[母] 몸에 감온 피(黑血) 석 들 열흘, 아옵 들 열 들 준삭(準朔) 체왕¹⁵⁾ 헤복(解腹)시기라.”

“어딜로 헤복시길네까”

듣기 전(前)의 아바님의 우궤 그뜬 소리 벡락(霹靂) 찌 질러가난 무쉐설캅[鐵石匣]에 체와놓고 ‘임박수이 임보루주 게문(開門) 게철 흐라’ 글 삼제(三字)를 쓰어놓고 동이요왕(東海龍王)의 띠왔더니, 물 알[下]에도 연(連) 삼년 물 우의도 연 삼년 떠 뎅기단 처녀물 ?의 올렸더니 ‘임박수임보루주’가 게문 게철 흐라 허여시난 마흔오십[四十八] 거슴¹⁶⁾ 통췌¹⁷⁾ 절로¹⁸⁾ 성강¹⁹⁾ 읊아놓고 무쉐설캅 안을 보난 앞니망[前額]엔 햇님이여,²⁰⁾ 뒷니망엔 둘님이여, 양단득지[兩端肩] 금산사별²¹⁾ 오송송이²²⁾ 백인 듯한 아기씨가 앗아시니 임박수가 흐는 말이,

“너는 귀신이냐? 생인(生人)이냐?”

1) 아방국 : 아버지, 부모를 일컬을 때 흔히 '-국'을 붙임. '국(國)'에서 온 말인 듯.

2) 메온 : 뽑은.

3) 즙가심 : 젖가슴.

4) 허위튼은 : 잡아뜯은, 긁어뜯은.

5) 췬처리 : 대장장이.

6) 무쉐설캅 : 무쇠 석갑(石匣).

7) 맹글아그네 : 만들어서.

8) 동이와당데레 : 동해바다로.

9) 띠와불미 : 띠워 버림이.

10) 생불왕이 : 아기의 잉태와 출산, 양육을 맡은 신. 곧 삼승할망.

11) 엇이메 : 없으니까.

12) 설연 흐라 : 마련하라의 뜻.

13) 생불 : 생불(生佛). 곧 잉태와 해산을 뜻함.

14) 어떻 주멍 : 어떻게 주며.

15) 체왕 : 채워서.

16) 거슴 : 자물쇠청.

17) 통췌 : 자물쇠.

18) 절로 : 저절로.

19) 성강 : 자물쇠가 열려지는 소리.

20) 햇님이여 : 해님이여. 이쁘다는 뜻.

21) 금산사별 : 샛별의 미칭인 듯.

22) 오송송이 : 많은 별이 솜솜이 빛나는 모양.

“귀신이 어찌 날 배 있으리까. 나는 아방국 동이요왕(東海龍王)으로서 인간에 생불왕(生佛王)이
웃다²³⁾ 흔니 생불왕이 됐을네다.”

“야, 그러거든 우리 부베간(夫婦間)이 오십 쉰이 지나가도 인간에 생불이 엇지니 생불을 주기
어찌 허겠느냐?”

“어서 걸랑 그리흡서.”

아방 몸에 흰 피 석 들 열흘, 어멍 몸에 감온 피[黑血] 석들 열흘 아홉 들 열들 준삭(準朔)을 제
와도 어딜로 헤복(解腹)시길 츄렐(次例) 몰란 열두 들이 지나가난 아기 어멍[母] 죽을 수경(死境)
뒈여 간다. 동이용궁(東海龍宮) 땐애기 겁훈 지망에²⁴⁾ 은²⁵⁾ 받아들언 애기어멍 누단 즈드랭
이²⁶⁾ 솜솜이 끊어놓고²⁷⁾ 아기 헤복 시겨가니 구덕²⁸⁾ 잃고 거 일흐게²⁹⁾ 뒤여가난 동이용군 땐애
기 겁난 지망에 든[走]는 것이 처녀물 ?의 쉬양버드낭³⁰⁾ 알에 앗안 비새 ?찌 울어간다.

임박사는 이런 원통과 칭원(稱冤)이 어디 이시리야. 어느 원(員)에 신원(伸冤) 흔리. 동해산(東海
山) 서해산 남해산 북해산 아양안동 금백산 올라사 칠성단(七星壇)을 무어놓고³¹⁾ 옥황상저(玉皇
上帝)에 천앙낙화 금바랑³²⁾ 쇠를 울렸더니 옥황상저이 흔를날은 인간을³³⁾ 짚어보니³⁴⁾ 난디 엇는
천앙낙화 옥술발³⁵⁾ 소리가 나 가난.

“야, 이거 어떤 일인고.”

지보수천왕(地府四天王)에 하맹(下命)을 흔둬.

“어떤 일로 밤도 고요 낮도 고요한 디 금바랑 천앙낙화 소리가 나느냐?”

지보수천왕이 말을 흔둬.

“상전(上典)님아, 상전님아, 인간에 생불왕이 엇어지니 임박수가 칭원(稱冤) 흔고 원통훈 천앙낙
화 금바랑 소리웨다.”

“야, 그렇구나. 그러니 인간이 낮도 고요 밤도 고요하여지는구나.”

옥황상저이 저승 염내왕(閻羅王)을 불러 놓고,

“저승에나 인간에나 어느 누게 생불왕(生佛王)으로 들어 살만한 인간이 엇겠느냐?”

지보수천왕이 말을 흔둬.

“예, 인간이 이실 듯 흔오리다. 아방국[父]은 서카여리(釋迦如來) 어멍국[母] 서카무니(釋迦牟尼)
로서 인간에 멩진국³⁶⁾ 아기가 솟아나 탄생일(誕生日)을 보건데 벵인년(丙寅年) 벵인월 벵인일
벵인시 삼진(上辰) 정월(正月) 초사흘날 솟아나 부모에 효심 흔고 일가방답(一家親戚) 화목(和睦) 흔
고 지픈 물에 드리[橋] 노아 월천(越川) 공덕(功德) 흔고 혼착³⁷⁾ 손엔 번성꽃(繁盛花) 혼착 손엔
환생꽃(還生花) 거느려, 이 아기씨 생불왕(生佛王)으로 들여세우기 어찌 흔네까?”

23) 웃다 : 없다.

24) 겁훈 지망에 : 겁이 난 김에.

25) 은²⁵⁾ : 은(銀)가위.

26) 즈드랭이 : 오른쪽 겨드랑이.

27) 끊어놓고 : 끊어놓고.

28) 구덕 : 바구니. 여기서는 아기를 눕혀 훈들어 재우는 바구니를 말함. 곧 요람(搖籃). ‘구덕 잃고 거 잃은다’ 함은 아기도 죽고 산모도 죽게 된다는 말.

29) 일흐게 : 잃게.

30) 쉬양버드낭 : 수양버드나무.

31) 무어놓고 : 배설(排設)하여 놓고. 설비하여 놓고의 뜻.

32) 천앙낙화 금바랑 : 요령과 바라. ‘천앙낙화’는 요령을 일컫는 말. ‘금바랑’은 금바라.

33) 인간 : 인간 세상의 뜻.

34) 짚어보니 : 손가락을 짚어 점치는 듯 봄.

35) 천앙낙화 옥술발 : ‘천앙낙화금정옥술발’과 같음. 요령을 일컫는 말.

36) 혼착 : 한쪽

“어서 걸랑 그리 흐라.”

옥황상저이 금부도소(禁府都事)를 누리와³⁷⁾ 금부도소가 멩진국을³⁸⁾ 근당(近當) 흐니 멩진국이³⁹⁾ 말을 흐워.

“우리 아기 아뭇 죄(罪)도 엊습네다. 아기 데신(代身) 부모 가기 어쩝네까?”

“옥황상저의 멩령(命令)이라 흐는 수 엊습네다.”

멩진국따님아기 말을 흐워.

“아바님아, 어머님아. 죄가 엇이민 죽이는 법 엊입네다. 제가 가오리다.”

멩진국따님애기 노각성주부줄⁴⁰⁾로 옥황상저(玉皇上帝)에 올라가니, 옥황상저이 말을 흐워, 아기씨 뜨집이나 보져.⁴¹⁾

“총각머리⁴²⁾ 등에 진 처녀아기씨가 어찌 대천한간으로⁴³⁾ 들어가겠느냐?”

멩진국따님아기 말을 흐워.

“소녀(小女)도 아렐 말씀 있으리다. 남자 여자(男子女子) 구별은 여태지 지금인디⁴⁴⁾ 어떤 일로 총각머리 등에 진 처녀를 부릅데가?”

“야, 똑똑하고 역력 흐다. 그만 흐민 인간생불왕(人間生佛王)으로 들어살 만 흐구나. 너를 부른 건 다음이 아니라 인간에 생불왕이 엉어지니 생불왕으로 들어사기 어찌 흐겠느냐?”

이 말 끝데 멩진국따님애기가 말을 흐워.

“옥황상저님아, 아무 철도 때도 모른⁴⁵⁾ 어리고 미혹(迷惑) 흐 소녀가 어찌 쟁불(生佛)을 주고 환생을 줍네까?”

“아방[父] 몸에 흰 피 석 둘 열흘, 어명[母] 몸에 감온 피[黑血] 석 둘 열흘, 술[肉] 술아⁴⁶⁾ 석 둘 뼈[骨] 술아 석둘 아홉둘 열둘 준삭(準朔) 체왕 아기어명 늦인 뼈 뿌리우고⁴⁷⁾ 뿌든 뼈⁴⁸⁾ 늦추왕 열두구에문으로⁴⁹⁾ 헤복(解腹)시기라.”

“어서 걸랑 그리 흐옵소서.”

어딧 영(衿)이라, 거역 흘 수 엊어, 옥황상저의 분부대로 생불왕으로 임명받아 할마님 행착 출리워.⁵⁰⁾ 만산족도리⁵¹⁾에 남방수주(藍紡紗紬) 저구리 북방수주(白紡紗紬) 붕에바지⁵²⁾ 대홍대단(大紅大緞) 흑단치메⁵³⁾ 물멩지⁵⁴⁾ 단속곳⁵⁵⁾에 아방국[父] 도업(都邑) 흐던 쇠월(四月) 초파일날 인간으로 노각성주부줄로 신누려⁵⁶⁾ 멩진국을 가다보니, 처녀물 ?의 쉬양버느낭 알에서 난디엇인 처녀아기

37) 누리와 : 내리어. 내려 보내어.

38) 멩진국 : 지명(非實在).

39) 멩진국 : 여기서는 삼승할망(멩진국따님애기)의 아버지를 뜻함.

40) 노각성주부줄 : 미상. 하늘에 오르내리는 길로서 잡고 오르내리는 줄인 듯.

41) 뜨집이나 보져 : 마음 속이나 보고자(보려고).

42) 총각머리 : 등 뒤로 땋아 늘인 머리.

43) 대천한간으로 : 대청 한가운데로. 제주의 가옥 구조로는 삼방(上房 : 마루방)을 말함.

44) 여태지 지금인디 : 여태 지금. 여태까지.

45) 철도 때도 모른 : '철모르고 때모른'은 분수 모른의 뜻.

46) 술아 : 기본형 '술다' 또는 '설다=서다'. 아기 '서다'는 잉태되다의 뜻.

47) 뿌리우고 : 뺏뺏하게 하고.

48) 뿌든 뼈 : 뺏뺏한 뼈.

49) 열두구에문 : 열두 궁의 문. 곧 여성의 생식기를 뜻함.

50) 행착 출리워 : 복장을 차리되

51) 만산족도리 : 족두리의 한가지.

52) 붕에바지 : 솜을 넣어 만든 바지.

53) 흑단치메 : 흑치마. '-단-'은 단(單).

54) 물멩지 : 명주의 일종. 좋은 명주.

55) 단속곳 : 단(短)속옷.

56) 신누려 : 내려. '신-'은 접두사.

씨가 앗안⁵⁷⁾ 비새⁵⁸⁾찌 읊엄시난⁵⁸⁾.

“나도 처녀 저기 앗안 우는 것도 처녀, 어찌 처녀아기씨가 앗안 우는고? 가고 보자.”

“어떻흔 아기씨가 앗안 비새⁵⁸⁾찌 읍네까?”

물었더니,

“나는 동이요왕(東海龍王) 뜨님아기롭서 인간생불왕으로 귀양을 오란⁵⁹⁾ 비새⁵⁸⁾찌 읍네다.”

멩진국뜨님애기 말을 흐뒈.

“나는 옥황상저의 분부받은 인간생불왕이 됩네다.”

그 말 끈데, 동이용궁 뜨님애기 성식을⁶⁰⁾ 벌딱 내명 멩진국뜨님애기 머릿곱일⁶¹⁾ 외오느다⁶²⁾ 핑핑 손에 감안 인간할마님을 구탈(毆打) 주니, 멩진국이 말을 흐뒈.

“우리 어디서 영⁶³⁾ 흐지 말고 옥황상저 분부대로 흐기가 어찌 흐겠느냐?”

“어서 걸랑 그리 흐자.”

노각성주부줄로 옥황상저에 올라가니 옥황상저이 말을 흐뒈.

“너이덜 얼굴 보건디는 어느 누게 구별흘 수 업어지고, 생불(生佛) 환생(還生) 주는 디도 어느 누게 구별흘 수 업어진다. 천계왕을 불르라. 벽계왕을⁶⁴⁾ 불르라. 꽃씨 두 방울을 내여주건 서천 서약국(西天西域國) 계모살왓디⁶⁵⁾ 꽃씨[花種] 두 방울을 싱경⁶⁶⁾ 꽃번성(花繁盛)하는 대로 생불왕을 구별⁶⁷⁾ 흐리라.”

계모살왓디 꽃씨를 드렸더니⁶⁷⁾ 고장[花] 번성하는 것이 동이용궁 뜨님애기 꽃은 보난 불리[根] 도 웨불리[單根] 가지도 웨가지 송애[筍]도 웨송애[單筍] 금뉴울꽃⁶⁸⁾ 웨고 멩진국 꽃은 보난 불리는 웨불리요, 가지 송앤⁶⁹⁾ 스만 오천 육백 가지 번성⁷⁰⁾난 옥황상저이 꽃빈장을⁷⁰⁾ 가니, 옥황상저이 말을 흐뒈.

“동이용궁 꽃은 보난 금뉴울꽃이 되니 저승할망으로⁷¹⁾ 들어사곡, 멩진국 꽃은 보난 번성꽃이 웨니 인간할망으로⁷²⁾ 들어사라.”

동이용궁 뜨님애기 성식을 벌딱 내명 멩진국할망 꽃을 상가지[上枝]로 오독독 거꺼 앗으난,⁷³⁾ 인간할마님이 말을 흐뒈.

“무사⁷⁴⁾ 나 꽃 상가질 거끄느냐?”

동이용궁뜨님애기 말을 흐뒈.

“인간에 생불을 주곡 환생을 주엉 석돌 열흘 벽일(百日)이 웨민 정풍(驚風) 정쎄(驚勢) 느진

57) 앗안 : 앉아서.

58) 읊엄시난 : 읊고 있으니까.

59) 오란 : 와서.

60) 성식을 : 화를.

61) 머릿곱일 : 긴 머리의 굽이쳐 감은 부분을.

62) 외오느다 : 좌우로.

63) 영 : 이리, 이렇게.

64) 벽계왕 : 천계왕과 더불어 신의 이름.

65) 계모살왓디 : 자잘한 모래밭에.

66) 싱경 : 심어서.

67) 드렸더니 : 씨드리다=씨를 심다. 씨를 뿌리다의 뜻.

68) 금뉴울꽃 : 이우는 꽃. 시들어 가는 꽃.

69) 송앤 : 송이는.

70) 꽃빈장 : 꽃자랑. 꽃심사의 뜻.

71) 저승할망 : 저승에서 죽은 아기의 혼을 관장하는 여신. ‘구할망’ ‘구삼상’ ‘구천낭할망’ 등이라 부름.

72) 인간할망 : 인간 세상의 삼승할망(產神).

73) 거꺼 앗으난 : 꺾어 가지니.

74) 무사 : 왜.

듯⁷⁵⁾ 뿐듯⁷⁶⁾ 열두풍문[十二風雲]을 주렁 얹어 먹겠노라.”

인간할망이 말을 헤워.

“그리 말고 우리 조은 모음⁷⁷⁾ 어찌⁷⁸⁾ 먹겠느냐? 내 인간에 누려상⁷⁷⁾ 생불(生佛)을 주민 저승걸례⁷⁸⁾ 아홉자도 저인정(人情)⁷⁹⁾ 걸어주마. 걸레삼승⁸⁰⁾ 업계삼승⁸¹⁾ 저인정 걸어주마. 아기어멍 헌페머리⁸²⁾ 뜸든 적삼⁸³⁾ 뜸든 치매 저인정 걸어주마.”

“어서 걸랑 그리하자.”

동이용궁 따님애긴 저승으로 올라사고 인간맹진국할마님은 인간으로 누려 살 때 서로 작별잔(作別蓋)을 지네기자.⁸⁴⁾ 저승할망 맞 앗아난 잔(蓋) 이승할망이 받곡 이승할망 맞 앗아난⁸⁵⁾ 잔(蓋) 저승할망이 받양 서로 작별잔 지날루자.⁸⁶⁾ [小巫가 두 상의 술잔을 서로 바꾸어 부음]

이승할마님은 인간을 누려사 동해산(東海山) 서해산 남해산 북해산 아양안동 금백산 울성 안성[籬城內城] 네웨성(內外城) 네웨 팔친경(內外八層磬) 집을 무여놓고 문 안에도 예쉰[六十] 업계문반겼디도 예쉰 업계⁸⁷⁾ 거느려, 할마님은 좀이⁸⁸⁾ ?든⁸⁹⁾ 붓(筆)에 일천장(一千張) 베릿돌(硯石) 삼천장 먹을 굽아 훈착 손엔 번성꽃(繁盛花) 훈착 손엔 환생꽃(還生花) 거느련 할마님 좌정(坐定) 훌 때 천왕(天皇)⁹⁰⁾엔 천왕불도 할마님 지왕엔 지왕불도(地皇佛道) 할마님 인왕엔 인왕(人皇)불도 할마님, 석해산 안태중 이리싱전 여리불도(如來佛道) 할마님, 동백장(東壁櫈) 서백장 좌정(坐定) 훌 할마님, 칠십삼보살(七十三菩薩) 할마님, 강씨여리(姜氏如來) 석씨여리(昔氏如來) 방씨여리(方氏如來), 초사을[初三日] 초일궤[初七日] 열사을 열일궤 수무사흘 수무일궤[二十七日] 생진일(生辰日)로 상받던⁹¹⁾ 할마님, 업계에서는 구덕삼승 업계삼승 걸레삼승 삼보살(三菩薩) 할마님이 좌정(坐定) 훌게 뛰는 디 저승할망 이승할망 급 가르레⁹²⁾ 가자. [저승할망 상인 채롱을 대문 바깥으로 내어놓음]

- 濟州市 龍潭洞 男巫 安仕仁 口誦實演

동해용왕 할머님이 먼저 태어났습니까, 인간 할머님이 먼저 탄생했습니까? 동해용왕 할머님이 먼저 태어났습니다. 동해용왕 할머님이 태어나기는 구월 초아흐렛날 아버님 동해용궁 어머님 서해용궁으로 태어나 열다섯 십오 세 되니, 한두 살에 아버님 삼각수 뽑은 죄목, 아버님 담뱃대 꺾은 죄목, 어머님 젖가슴 잡아뜯은 죄목 때문에 죽이기로 했습니다. 서해용궁 어머님이 말을 하되,

“이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을 어찌 내 손으로 죽일 수 있습니까. 그리 말고 동해용궁 대장장이

75) 느진듯 : 어린 아기의 병인데 자세한 병명은 모름.

76) 부뜬듯 : 위와 같음.

77) 누려상 : 내려서서.

78) 저승걸례 : 구삼싱(神)에게 바치는 아기업는 멜빵.

79) 저인정(人情) : 신에게 바치는 재물(財物). '저-'는 조율음.

80) 걸레삼승 : 아기 업는 멜빵의 수호신.

81) 업계삼승 : 업저지의 수호신.

82) 헌페머리 : 딴머리.

83) 뜸든 적삼 : 땀이 밴 적삼. 곧 오래 입어 정든 적삼.

84) 지네기자 : 넘기자. '지-'는 접두사.

85) 맞 앗아난 : 마주 앉았던.

86) 지날루자 : 나누자. '지-'는 접두사.

87) 업계 : 업저지.

88) 좀 : 엄지손가락과 장가락을 등글게 맞붙인 둘레의 크기.

89) ?든 : '가득은'의 축약.

90) 천왕(天皇) : 이하 산신의 직능별 이름.

91) 상받던 : 젯상을 받던. 제의(祭議)를 받던의 뜻.

92) 가르레 : 금. 경계. '갈르레'는 가르려(分).

아들을 불러다 무쇠석갑을 만들어서, 죽으라고 동해바다에 띄워 버림이 어떠하겠습니까?”

“어서 그것은 그렇게 하자.”

동해용궁 따님애기가 말을 하되.

“어머님아, 난 인간에 가서 뭣을 하며 삽니까?”

“인간에 아기의 잉태와 출산, 양육을 맡은 삼승할망인 생불왕이 없으니 생불왕으로 들어서서 얹어먹도록 하라.”

“생불은 어떻게 주며 환생은 어떻게 줍니까?”

“아버지 몸에 흰 피 석 달 열흘, 어머니 몸에 검은 피 석 달 열흘, 아홉 달 열 달 준삭 채워 출산을 시켜라.”

“어디로 출산을 시킵니까?”

대답을 듣기 전에 아버님이 우레 같은 소리를 벼락같이 질러가니 무쇠석갑에 가둬놓고 ‘임박사 임보루주가 문을 열어라.’ 글 석자를 써 놓고 동해용왕에 띄워 버립니다. 물 아래에도 3년, 물 위에도 3년 떠 다니다 처녀물 가에 올렸더니 임박사가 봅니다. ‘임박사 임보루주가 문을 열어라.’ 하였으니 마흔여덟 자물쇠를 저절로 열어놓고, 무쇠석갑 안을 보니 앞이마엔 햇님인듯, 뒷이마엔 달님인 듯 양쪽 어깨엔 샛별이 오송송하게 박힌 듯한 아기씨가 앉아 있습니다. 임박사가 하는 말이,

“너는 귀신이냐? 생인이냐?”

“귀신이 어찌 나오겠습니까. 나는 동해용왕의 딸인데 인간에 생불왕이 없다 하니 생불왕이 됩니다.”

“야, 그러거든 우리 부부간에 오십 쉰이 지나가도 인간에 아이가 없으니 아기를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어서 그것은 그렇게 하십시오.”

아버지 몸에 흰 피 석 달 열흘, 어머니 몸에 검은 피 석 달 열흘, 아홉 달 열 달 준삭을 채워도 어디로 해산시킬 차례를 몰라서 열두 달이 지나가니, 아기 엄마는 죽을 사경이 되어간다. 동해용궁 따님아기는 겁이 난 김에, 은가위 받아들고 아기 어머니 오른쪽 겨드랑이를 솜솜이 끊어놓고 아기를 해산시켜 가니, 아기 잃고 엄마 잃게 되어간다. 동해용왕 따님아기는 겁난 김에 뛰는 것이 처녀물 가의 수양버드나무 밑에 앉아 비새같이 웁디다.

임박사는 이런 원통함과 칭원함이 어디 있을까. 어느 원님에게 원통함을 알릴까. 동해산, 서해산, 남해산, 북해산, 아양안동 금백산 올라서서 칠성단을 배설하여 놓고 옥황상제에게 요령과 바라 소리를 울렸더니, 옥황상제께서 하루는 인간 세상을 손가락을 짚어 점치듯 하나하나 살피는데, 난데 없는 요령과 바라 소리가 난다.

“야, 이거 어떤 일인고?”

지부사천왕에게 하명을 하되.

“어떤 일로 밤도 고요하고 낮도 고요한데 바라와 요령 소리가 나느냐?”

지부사천왕이 말을 하되.

“상전님아, 상전님아, 인간 세상에 생불왕이 없으니 임박사가 칭원하고 원통한 요령과 바라 소리입니다.”

“야, 그렇구나. 그러니 인간 세상이 낮도 고요하고 밤도 고요했구나.”

옥황상제가 저승 염라왕을 불러놓고,

“저승에나 인간 세상에나 어느 누구 생불왕으로 들어설 만한 인간이 없겠느냐?”
지부사천왕이 말을 하되,

“예, 인간 세상에 있을 듯하옵니다. 아버님은 석가여래 어머님은 석가모니로서 인간 세상에 멩진국 따님아기가 태어났는데, 탄생일을 보니 병인년 병인월 병인일 병인시 정월 초사흘날 태어나, 부모에 효심하고 일가친척 화목하고 깊은 물에 다리 놓아 건너다니게 공덕을 쌓고, 한쪽 손엔 번성꽃 한쪽 손엔 환생꽃을 들었으니, 이 아기씨를 생불왕으로 들여 세우는 것이 어떻습니까?”

“어서 그건 그렇게 하라.”

옥황상제는 금부도사를 내려보내자, 금부도사가 멩진국에 가까이 오니, 멩진국 따님아기의 아버지가 말을 하되,

“우리 아기 아무 죄도 없습니다. 아기 대신 부모를 데려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옥황상제의 명령이라 하는 수 없습니다.”

멩진국 따님아기가 말을 하되,

“아버님아, 어머님아, 죄가 없으면 죽이는 법 없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멩진국 따님아기는 노각성자부줄을 타고 옥황상제에게 올라가니 옥황상제가 말을 하되, 아기씨의 속 마음이나 알아보려고,

“총각머리를 등에 진 처녀아기씨가 어찌 대청 한가운데로 들어오느냐?”

멩진국 따님아기가 말을 하되,

“소녀도 아릴 말씀 있습니다. 남자 여자 구별은 여태 지금까지 있는데 어떤 일로 총각머리 등에 진 처녀를 불렀습니까?”

“야, 똑똑하고 역력하다. 그만하면 인간 세상에 생불왕으로 들어설 만하구나. 너를 부른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인간 세상에 생불왕이 없으니 생불왕으로 들어서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말 끝에 멩진국 따님아기가 말을 하되,

“옥황상제님아, 아무 분수를 모르는 어리고 미혹한 소녀가 어찌 생불을 주고 환생을 줍니까?”

“아버지 몸에 흰 피 석 달 열흘, 어머니 몸에 검은 피 석 달 열흘, 살을 만들며 석 달, 뼈를 만들며 석 달, 아홉 달 열 달 준삭 채워 아기 어머니 헐거운 뼈를 뺏뺏하게 하고, 너무 뺏뺏한 뼈 헐겁게 하여 열두 궁의 문으로 해산을 시켜라.”

“어서 그것은 그렇게 하십시오.”

어디 명령이라 거역할 수 없어서 옥황상제의 분부대로 생불왕으로 임명받아 복장을 차리되, 만산족두리에 남방사주 저고리, 북방사주 붕에바지, 대홍대단 홀치마, 물명주 단속옷으로 치장한다. 아버님이 태어나던 사월 초파일날 인간 세상으로 노각성자부줄을 타고 내려 멩진국을 향해 가는데, 처녀물 가의 수양버드나무 밑에서 난데없는 처녀아기씨가 앓아 구슬프게 울고 있으니,

“나도 처녀, 저기 앓아 우는 것도 처녀, 어찌 처녀아기씨가 앓아서 우는고? 어서 가 보자.”

“어떤 아기씨가 앓아서 슬프게 웃습니까?”

물었더니,

“나는 동해용왕 따님아기로 인간 세상에 생불왕으로 귀양을 와 슬프게 웃습니다.”

멩진국 따님아기 말을 하되,

“나는 옥황상제의 분부받은 인간 세상의 생불왕이 됩니다.”

그 말 끝에, 동해용궁 따님아기 화를 벌컥 내며 멩진국 따님아기의 머리를 좌우로 펑펑 손에

감아서 구타하니, 멩진국이 말을 하되.

“우리 여기서 이렇게 싸우지 말고 옥황상제 분부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어서 그것은 그렇게 하자.”

노각성자부줄로 옥황상제에게 올라가니 옥황상제가 말을 하되.

“너희들 얼굴을 봐서는 어느 누구가 낫다고 구별할 수 없고, 생불 환생을 주는 데도 어느 누가 낫다고 구별할 수 없다. 천계왕을 부르라. 벽계왕을 부르라. 꽃씨 두 방울을 내 주면 서천 서역 국 자잘한 모래밭에 꽃씨 두 방울을 심어 꽃 번성하는 대로 생불왕을 구별하겠다.”

모래밭에 꽃씨를 뿌렸더니 꽃이 번성하는데, 동해용궁 따님아기 꽃은 보니 뿌리도 하나, 가지도 하나, 송이도 하나로 시드는 꽃이 되고, 멩진국 따님아기 꽃은 보니 뿌리는 하나인데 가지는 4만 5천 6백가지로 번성한다. 옥황상제에게 꽃 자랑을 하러 가니, 옥황상제가 말을 하되.

“동해용궁 따님아기 꽃은 보니 시드는 꽃이 되었으니 저승할망으로 들어서고, 멩진국 따님아기 꽃은 번성꽃이 되었으니 인간할망으로 들어서라.”

동해용궁 따님아기가 화를 발칵 내며 멩진국 따님아기 꽃의 윗 가지를 오도록 꺾어 가지니 인간할머님이 말을 하되.

“왜 나의 꽃 윗 가지를 꺾느냐?”

동해용궁 따님아기가 말을 하되.

“인간에 생불을 주고 환생을 주어 석달 열흘 백일이 되면 경풍, 경세같은 열두 풍운의 병을 주어 얻어 먹겠다.”

인간할망이 말을 하되.

“그리 말고 우리 좋은 마음먹기가 어떠냐? 내 인간에 내려서서 생불을 주면 너의 몫의 멜빵 9자로 인정을 걸어주마. 아기 업는 멜빵 수호신의 몫과 업저지 수호신 몫도 인정 걸어주마. 아기 엄마의 땋은 머리와 땀이 밴 적삼, 땀이 밴 치마 모두를 인정 걸어주마.”

“어서 그건 그렇게 하자.”

동해용궁 따님아기는 저승으로 가고 인간 멩진국 할머님은 인간으로 내려설 때 서로 작별잔을 주고 받습니다. 저승할머니가 주는 잔은 이승할머니가 받고, 이승할머니가 주는 잔은 저승할머니가 받아 서로 작별잔을 주고 받습니다.

이승할머님은 인간세상에 내려서서 동해산, 서해산, 남해산, 북해산, 아양안동 금백산에 울타리 성 내외성을 둘러 8층 집을 지어놓고 문 안에도 60명의 업저지, 문 밖에도 60명의 업저지를 거느려, 할머님은 팔뚝만한 붓에 1천장 벼루, 3천장 먹을 갈아 인간 문서를 잡고 한 쪽 손엔 번성 꽃을, 한쪽 손엔 환생꽃을 들고서 좌정하였습니다. 천황에 가면 천왕불도 할머니, 지황에 가면 지황불도 할머니, 인황에 가면 인황불도 할머니, 석해산 안태중 이리싱전 여래불도 할머니이고, 동벽장 서벽장에 좌정하던 할머니이며, 73보살 할머니, 강씨여래 석씨여래 방씨여래 할머니입니다. 초사흘 초이레 열사흘 열이레 스무사흘 스무이레 생진일에 제사를 받던 할머니입니다.

엄저지신인 구덕삼신 업저지삼신 멜빵삼신 삼보살할머니가 좌정하게 되는데, 저승할머니와 이승할머니의 경계를 가르러 가자. [저승할망 상인 채롱을 대문 바깥으로 내어 놓음]